

“라두카누, 여성 선수 중 최초로 1억 달러 이상 벌 것”

US 여자 오픈 테니스에서 우승하며 돌풍을 일으킨 올해 18세의 영국 소녀 에마 라두카누가 여성 프로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이 13일 보도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라두카누는 US 오픈 우승으로 25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은 챔피언십 우승보다 각종 스폰서 계약으로 돈을 더 많이 번다.

런던의 인재 관리업체인 인터밸런트 그룹의 조너선 살랫 회장은 “라두카누는 2022년 한 해에만 1억 달러 이상을 벌어 다른 남자 선수들도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에마 라두카누. 사진=twitter(usopen)

라두카누는 불과 18세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고, 경기 내내 단 한 세트도 뺏기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일구는 등 폭발적 화제성을 갖췄다. 그는 중국인 어머니와 루마니아인 아버지를 두고 캐나다에서 태어나 2살 때 영국으로 이주했다. 많은 나라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다.

살랫은 그녀가 향후 5~10년 동안 꾸준한 성적을 낸다면 여성 스포츠 스타 가운데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남성 스포츠 스타인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라두카누는 지난 11일 뉴욕의 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레일라 페르난데스(73위·캐나다)와의 ‘10대 대결’에서 승리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다저스 포스트시즌 출전 확정… 9년 연속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가 9년 연속 미국 프로야구(MLB)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다저스는 지난 14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8-4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시즌 전적 93승58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와일드 카드 2위를 확보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번째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가을 야구 연속 진출 횟수도 9년으로 늘렸다. 이는 구단 최다 기록이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한 다저스의 남은 목표는 지구 우승이다. 다저스는 명실상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강자다. 지난 8시즌 동안 지구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존재 때문이다.

당초 올 시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전통의 강호 다저스와 공격적인 투자로 막강 전력을 구축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우승을 다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샌프란시스코가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일찌감치 선



두로 치고나갔고, 이날 현재까지도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다.

두 팀 중 지구 1위는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와일드 카드로 포스트시즌에 나서면 와일드 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가려면 험난한 길을 가야한다. 다저스가 역전 우승을 일궈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다저스는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고 샌프란시스코가 무너지길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 됐다.

캡카 “우즈 메이저 15승 따라잡을 수 있다”



▲ 브룩스 캡카. 사진=usatoday.com

‘메이저 사냥꾼’으로 불리는 브룩스 캡카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의 메이저 15승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캡카는 전날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 디아제스트와 인터뷰에서 “메이저 우승 횟수는 내가 우즈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제 서른한 살”이라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거둔 캡카는 그 가운데 4승을 메이저에서 따내 유독 메이저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인 선수다. 2017년과 2018년에 US오픈을 2연패 했고, PGA 챔피언십은 2018년과 2019년에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2019년에는 PGA 챔피언십 우승과 마스터스, US오픈 준우승, 디오픈 공동 4위 등 4대 메이저에서 모두 4위 이상의 성적을 내기도 했다. 올해도 마스터스에서는 컷 탈락했지만 PGA 챔피언십 준우승, US오픈 공동 4위, 디오픈 공동 6위로 메이저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캡카가 이날 언급한 우즈의 메이저 우승 기록은 15회다. 캡카보다 11차례 더 많은 메이저 우승 기록이다. 그러나 캡카는 우즈와 나이 차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우승을 하면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즈는 1975년생으로 캡카보다 15살이 많고, 니클라우스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은 18승이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 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